

불자 세상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초당적 합의 필요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최근 현 정권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져 있고 여당은 이달 23일까지를 자체 시한으로 정해 놓았는데 성완중 리스트가 모든 쟁점들을 짚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논의하여 같은 해 9월 18일 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같은 해 5월 29일 50개 단체가 함께 <공적연금계약 재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서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사를 표명했다.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도 현장에서 공무원 노조(勞組)의 실력행사를 통한 개혁으로 무산되었다. 이런 강성 노조에 야당이 가세할 때 개혁에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일정은 계속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10월 2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찬성을 얻은 당론으로 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올해 1월 6일 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금년 3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대타협기구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그 동안 제시된 5개안을 놓고 타협과 절충을 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새정치연합 문제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측이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절차 문제로 개혁에 제동을 걸 때는 아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등이 개혁 작업의 최종 단계에서 배제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현안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바 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가예산에서 매일 80억 원씩의 연금 보전액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5년 후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작년 2014년의 경우 총 국가부채는 1211조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그 중에서 644조원(총 부채의 53%)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인한 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인당 부담액이 1048원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의 이해에 직결된 초당(超黨)적 사안임을 말해준다.

이번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언제 개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 이번이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하는 대중 영합적 정치 속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개혁을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다면 청와대와 여야 3자가 그 필요성에 동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향기로운 세상’ 이웃과 함께하는 봉축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사찰은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에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함께 진행돼 의미가 더하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발표한 포스터를 보면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 적혀 있으며, 연꽃을 수지한 보살의 손이 눈에 띈다. 연등회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연등회 포스터는 국·영문 포스터 2개가 한 세트인 것이 특징이다. 소형 홍보 책자 역시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제작됐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 오심은 온 우주의 생명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일체 생명들이 참나를 찾

아 더불어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구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일대 서원과 가르침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이 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라가 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승병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의 전통은 연면히 이어졌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목욕터 대종교화에 헌신하거나 치열히 수행중이다. 봉축행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우리 한국불교의 가장 큰 축제마당인 만큼 전통은 살리되 이웃과 함께하는 여법한 행사가 되록 민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화려함만 추구하는 외형적 불거리에만 치중 말고 부처님오신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국민적 아니 세계인의 축제 한마당을 만들자.

전북 100인 대중공사에 거는 기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북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미 중단 차원에서 3차례 열렸던 사부대중 대중공사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의 금산사와 선운사 사부대중이 지역 불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북불교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최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불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한다고 한다. 현재 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은 불자의 고령화,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부재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적 약화로 인해 불교계가 전국에서 가장 약한 곳으로 갈수록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전북지역 대중공사는 지역 불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북불교 대중공사에는 교구 분사 사부대중과 재가 수행단체와 중단에 비판적인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전북불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짚어낼 것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성찰하고 소통하며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준비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이 자리는 침체된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중공사가 원만하게 결실을 맺기 바란다”며 “대중공사를 통해 채택된 안은 교구 중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중공사는 승가 고유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불교의 의사결정 전통이다. 이 같은 소통의 대중공사로 만들어질 전북불교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발언대

세월호 1주기와 불교의 역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세월호 이후 1년 동안 불교계가 해온 일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을 구분해 보자면 크게 셋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팽목항의 세월호 범당으로 상징되는 지속적인 예불 활동이다. 전국 곳곳의 절집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주모하는 법회가 열렸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불이 거의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불교계가 세월호와 관련되어 해온 일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위상은 종교로서의 불교에 맞춰져 있다. 불교의 철학적 속성 또는 영역에 관한 고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고려될 만하다. 왜냐하면 우선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 또한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속에서 종교와 철학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화두를 중심으로 두고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실천을 전개해왔던 실학적 지향 때문이다. 불교와 유교, 도교 모두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철학과 종교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삶의 의미 물음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 요청되고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세월호’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교로서의 불교는 세월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安心)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역할이지만, 특히 불교의 경우 ‘그들과 함께함’을 구현함으로써 정신적인 위안과 최소한의 평안을 줄 수 있다. 일상적인 치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

우에는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세월호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상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완결함으로써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정신적 분석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능한 그들이 자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불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 해야 할 역할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동체자비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공간으로 삼아 타자의 고통에 충분히 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범죄나 범플스테이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그러한 안목과 능력을 길러주는 공공교육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 연속선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이나 안전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의 물질주의적 사유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성찰의 장 마련 같은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해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 삶의 의미 물음을 지속적인 화두로 던지는 일이다. 세월호는 잠시나마 우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와 같은 의미 물음을 우리 눈앞에 던져주었지만,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런 물음들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여전한 밝음과 빠른, 편리함을 습관처럼 갈구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배후에 잠재되어 있는 어둠과 그림, 불편함의 미학은 극복되어야 하는 적대적 대상일 뿐이라는 일차원적 사유와 행동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한국 불교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화두참구를 일상으로 다시 끌어내려 삶의 의미 물음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등이 개최한 세월호 1주기 추모세미나의 발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세월호 아픔 보듬는 ‘安心’의 역할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앞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